대행 선사 가르침, 물질과학과 소통하다

(재)한마음선원, 11월 12일 '제2회 한마음 학술대회'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선수행 · 교육학 · 의학 등을 융합 · 통섭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재)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1월 12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선원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한마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한마음과학원은 대행 선사께서 펼쳐 주셨던 한마음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마음의 원리를 다양한 전공과 현실 분야에서 연구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정진하는 연구와 스터디 그룹토론 등을 통해 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고 정신계의 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마음과학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산하 연구, 교육기관인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불성을 믿어라"는 법어를 기치로 하여,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교육학 · 의학 · 선수행 부문에서 통섭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선법가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한마음과학원 연구진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식물 · 의학 · 교육 · 오공(五共)' 스터디 그룹의 연구 성과들이 눈길을 끌었다.

최재석 신라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스터디그룹은 '선법가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의 1차년도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선법가, 대행 선사 법문, 한마음 내기가 식물의 생리학적 메커니즘 및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연구하는 스터디그룹은 1차년도 사업을 통해 △문헌조사를 통한 실험방법론 확립 △예비 실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스터디그룹은 식물과 관련된 대행 선사 법문 정리 · 연구방법론 설정 등의 성과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동안 선법가와 대행 선사의 법문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회 한마음 학술대회에 참여한 학자들이 논문 발표 후 자유토론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 주관으로 열려
선원 사부대중 400여명 참석
대행선사 가르침을 바탕으로
禪 · 의학 등 통섭한 논문 발표

최 교수는 "해당 연구는 최종적으로 과도한 농약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기존 농법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농업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학 · 의학과의 상관관계는

교육학과 한마음 교육 원리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만 하다. '한마음 교육학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스터디 그룹의 대표로 발표한 유정오 미천초 교사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한마음교육학'이라는 학문으로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마음교육의 개념, 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 한마음 교육 시행 방법론 등을 설명했다.

유 교사는 "한마음교육학은 대행선사 가르침의 일반 · 보편화를 통해 교육현장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학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행선사께서 말씀하신 법문 원전에 기반한 법문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마음과학원 스터디 그룹 의학팀이 발표한 '한마음법에서의 생명 이해'를 통해서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 가르침과 의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설정했음을 밝혔다.

해당 연구에 대해 대표 발표자인 장미란 경희대 교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암이 근본적으로 왜 생기는 것인지, 왜 한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며 그 원리를 통해 어떻게 실제적 연구할 수 있는 지를 대행 선사의 법문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공 사상의 현대적 구현 방안을 제안한 연구 결과도 나왔다. 고명석 조계종 포교연구실 상임연구원은 발표한 '오공 사상의 철학적 조명과 공동체 정신의 현대적 구현'을 통해 현대적 공동체 운동으로서 오공 사상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고 연구원은 노사 문제 · 지역 포교 · 환경 운동을 예로 들며, "오공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속에서 드러나는 공식(共食)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공의 실천은 화엄연기와 진여연기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한마음도리와 교육, 한마음 의학과 선수행 세션에서는 '플라톤의 교육관에 비춰본 한마음교육의 원리(김영래)', '간화선의 관점에서 대행선에 대한 고찰(이상호)', '인체는 과연 공생 · 공체인가(안영우)' 등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립대들 입시일정 연기
교육원 산사캠프도 조정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 규모 강진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불교종립대 입시 일정과 수험생들을 위한 산사 캠프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동국대는 2018년도 수시모집 입시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19일 치러질 2018학년도 동국대 논술고사는 11월 26일에 열린다. 또한 2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는 12월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천태종립 금강대와 진각종립 위덕대 역시 대학교육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입시 일정을 1주일씩 연기키로 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에서 처음 실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산사캠프도 일정을 연기했다. 교육원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강화 전등사에서 진행키로 했던 산사청춘캠프 일정을 12월 14일부터 1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가 접수를 12월 1일까지 연기했다. 7~10일로 예정된 낙산사 산사청춘캠프는 예정대로 진행하나, 학생들의 기말시험 관계로 신청 접수를 12월 4일로 연장했다. **신성민 기자**

미국 경매 나온 '옥천사 나한상' 돌아온다

이달 중 환수 예정… 도난 후 30년 만에 제자리

도난 7존 중 5번째 환수 사례
해외 경매서 발견 이번이 처음
조계종 · 문화재청 공조 성과

1988년 경북 고성 옥천사에서 도난됐다 최근 미국 경매 시장에 출품됐던 나한상 중 하나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미국 경매에 출품돼 판매될 상황에 놓인 도반 성보문화재 '옥천사 나한상'을 확인했고, 해당 경매사와 협상을 통해 이달 중 환수하게 됐다"고 11월 14일 밝혔다.

국내로 돌아오는 나한상은 옥천사 나한전에 모셔졌던 16존의 나한상 중 하나로, 1988년 1월 30일에 7존이 한꺼번에 같이 도난당한 이후 약 30여 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5번째 존이다.

옥천사 나한상은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2존씩 총 4존이 회수됐으며, 환수 예정인 이번 나한상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3존 중 하나다. 환수되는 나한상은 중 도난 7존 중 유일하게 외국에서 발견된 사례다.


미국 경매에 나왔다 도난 문화재로 확인돼 환수되는 옥천사 나한상. 1988년 1월 30일 7존이 한꺼번에 도난됐다. 2014 · 2016년 4존이 환수됐으며, 이번이 5번째 환수다.

옥천사 나한상이 경매에 출품된다는 사실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유통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조계종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문화재가 도난품임을 파악했으며, 조계종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탁받아 미국의 해당 경매사에 도난 사실을 통보하고 경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수개월에 걸쳐 경매사 측과 우호적인 협상을 진행한 끝에 나한상 반환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국외 소재하는 불교문화재의 조사와 환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국외소재 불교문화재에 현황과 반출경위 등의 조사와 정보교환을 통해 꾸준히 협력해왔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2015년 6월 '선암사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 2016년 12월 '송광사 오불도'를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나한상 환수는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국외서 환수하는 세 번째 성보문화재이다.

이번 환수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이번 옥천사 나한상의 환수를 계기로 외국에서 거래되는 우리 문화재의 도난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거래 대상 문화재가 도난 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경매사 등과의 협상을 통해 자발적 반환을 이뤄내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전고법, 정혜사 소유권 소송 기각

15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서

선학원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혜사 부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이 파기환송심서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1월 15일 정혜사 부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선학원 정혜사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6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정혜사 재산관리인이었던 석청 스님과 수덕사 간 이뤄진 부제소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학원 측은 "재산관리인에 불과한 석청 스님에게 선학원의 중요 재산 처분에 준하는 권한이 없어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측 모두 만공선사가 중창한 사찰로서 서로 덕숭총림 구성원으로 인정해오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면서 "합의 내용이 수덕사에만 이익이 되고 선학원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석청 스님이 수덕사 이익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양측 갈등 이전에 정혜사를 사유화하려는 일부 승려 시도에 맞서 수덕사의 창건주 변경승인신청을 받아들인 점 △수덕사 요청에 따라 덕숭총림서 선출된 스님을 분원장으로 임명한 점 △수덕사로부터 관리를 받아온 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20년 넘도록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률상 문제 삼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선학원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재산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토지가 선학원 소유라고 당연히 전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양도 내지 증여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선학원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주목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